

2

AA

A

5

제7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두산베 세종학당	성명	한글	라흐마트자 자혼기르	생년월일	1998년 02월 08일
	영문			영문	Rakhmatzoda Dzhakhongir	학년	세종 6권

100

200

300

400

500

비가 내린다. 겨울은 재촉하는 가을 비
다. 이런 날이면 유난히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다.
그날도 오늘처럼 가을비가 내렸다. 몸
이 으슬으슬 추워서 따뜻한 레몬차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서서 비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에 놀라 창문
을 열어보니 비에 젖은 아주 작은 강
아지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리 끝 다친 듯했다.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의 엄한 눈초리
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다른 것은
생각한 수가 없었다. 얼른 내가 입었던
옷을 벗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어머니
몰래 우유를 먹이고 지하실 바닥에 다
집을 만들어 줬다. 이틀 만에 어머니 한
테 들켜 혼이 났지만 동물을 살려하시
던 어머니도 그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는 같이 살게 해주셨다.
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집
에만 있어야 했다. 친구도 없었고 나가
서 놀 힘도 없었다. 하루 종일 창밖
으로 해 질 때까지 신나게 노는 아이
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 아이들

제7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독산초 세종학당	성명	한글	라흐마트다 라혼기르	생년월일	1998년 02월 08일
	영문			영문	Rakhmatzoda Dzhakhongir	학년	세종 6권

이 참 부러웠다. 그렇게 늘 외로웠던
 나에게 친구가 생긴 거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록키다. 나의 친구 강아리의 이
 름이다. 동물을 싫어하시던 어머니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니까 지어주신 이
 름이다. 어린 록키가 우리들의 사랑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무럭무럭 자랐다. 학교
 에 갔다 오면 문 앞에서 꼬리치며 기
 다릴 록키를 생각하여 내가 집으로 달
 려오곤 했다. 그뿐만 아니라, 록키가 나
 를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그리
 고 동네 앞 상수리나무 밑에서 록키가
 마치 정호원처럼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
 를 기다렸다.
 정말 신기하게도 록키가 온 다음부터
 는 내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밖으
 로 나가 놀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좋아졌다. 해 길 무렵 록키와 함께 동
 네를 산책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
 운 일이었다. 우리는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절친이었다. 부러울 게 없었다. 나
 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몇 년 지나 우리 가족은 다른 도시
 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나의 눈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 버린 록키

제7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두산세 세종학당	성명	한글	라흐맛조다 자혼기즈	생년월일	1998년 02월 08일
	영문			영문	Rakhmatzoda Dzhekhongir	학년	세종 6권

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었다. 결국 족키를 친구 집에
 맡기기로 하고 동네 시골 커다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보
 내고 있었다. 족키는 나와 이별을 느
 낄 듯이 안절부절하며 킁킁 울고 있었
 다. "족키야 걱정 마, 내가 꼭 돌아올
 게 널 만나러" 족키 눈을 보면서 족
 키에게 말했다. 그리고 "꼭! 돌아올 거야"
 라고 스스스로 다짐했다. 아직도 족키를
 끌어안고 해 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울었던 그날을 기억한다.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았던 내가 새로
 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 힘
 들었다. 족키가 보고 싶어서 이사를 간
 게 아버지 탓인 양 아버지들을 원망하기
 도 했다. 가끔 내가 몸이 아플 때 꿈
 에 족키가 나타나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건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 점점 새로운 친구들을 만
 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해서 나의 머릿
 족키에 대한 기억이 멀어져 갔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톨강
 가 섰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
 나오셨다.
 "아야, 놀라지 마, 족키가 돌아왔어. 족

제7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독산제 세종학당	성명	한글	라흐마트조다 라흐키르	생년월일	1998년 02월 08일
	영문			영문	Rakhmatzoda Dehakhongir	학년	세종 6권

키가." 나는 너무 놀라 가방을 던져
 버리고 겁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정말
 그 곳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나지만 내
 친구 죽기가 있었다. "죽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억사 안고 울었
 다.
 아버지가 출장 차 우리 살던 동네에
 가서서 죽기가 있는 걸 보시고 놀랐
 다. 하셨습니다. 동네 시골 앞 상수리 나무 밑
 에서 죽기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죽
 기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기가 그 나무 밑에서 나를 기
 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개 죽이
 되어서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죽기
 를 처음 만날 때 6살이었는데 죽기
 도 그 6살 때 영원히 내 곁을 떠났
 다.
 오늘도 가을비가 내린다. 계절은 신실
 하고 정직한 친구처럼 돌아온다. 나도
 나의 죽기라는 친구처럼 신뢰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죽기를 잊어버렸지만
 죽기는 내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다렸다.